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8년 9월 28일(금)  
(음력 8월 19일)

Пятница  
28 сентября 2018 г.  
№ 38(116805)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9월 27일 러시아에서 학령전 교육 근로자 날 기념

유즈노사할린스크 제44 유치원 <네자부드카(물망초)>는 작년에 25주년을 맞이했다. 오래 된 유치원이지만 좋은 장비와 수영장 등을 갖춘 교육기관이다. 이 곳은 수준높은 교원들이 꽤 많이 근무한다.

준비반 교원인 김 이리나 세르게예브나(사진 왼쪽)는 사할린국립대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전공했으며 대학 졸업 후 12년 이상 본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예카체리나 블라지미롭나는 유치원 음악교원이다. 본 유치원 근무경험은 7년이다.

두 교육자들은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동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

(취재: 이에식 기자)

## 사할린주, 8개월 결산

올해 8개월 간 사할린주 경제발전의 총결산이 이뤄졌다.

경제발전부 평가에 따르면 지역 제품 생산량은 6천7백 55억 루블리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유사동기의 98.4%가 된다. 산업 생산량은 6천 6백 33억 루블리(98.5%)에 해당했다.

작년 같은 동시기에 비해 가스 생산량은 6.8% (2백 13억 m<sup>3</sup>), 석탄 채취량은 1.5배(7백 10만 톤) 가량 증가했다. 가스응축액을 포함한 석유 생산량은 3% 감소한 1천2백 40만 톤에 달했다.

대체적으로 사할린주에서 전기, 증기 및 운수, 액화천연가스, 목재, 생선통조림, 우유와 유제품, 치즈, 발효유 제품, 버터, 육류, 부위별 포장육류, 육가공류, 소시지 제품, 다이어트 제품을 포함한 특수 제빵류, 맥주와 식수의 생산량이 증가되었다.

농산물 생산량은 49억 루블리에 달했으며 이는 2017년 같은 시기에 비해 1.4배 증가한 것이다. 육류 생산량은 1.8배, 계란 생산량은 1.4배 가량 큰 폭으로 증가했다. 우유는 7.9% 증가되었다. 돼지 사육 마릿수는 1.2배, 소 사육 마릿수는 9.2%, 가금류는 1.3%, 소 한마리당 평균 우유 생산량은 8.6%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부터 8개월 간 사할린주에서 13만 4천 3백 평방미터의 주거 면적이 완공되어 운영되었다.

소비시장에서의 소매 거래액 역시 연신 증가되고 있으며(3.8%),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 역시 지속적으로 1.7% 가량 상승했다.

2018년 8월 말 기준으로 기록 된 실업률은 0.5%에 해당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0.1% 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제22회 <사할린의 석유와 가스> 컨퍼런스 개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 <스톨리차> 비즈니스 센터에서 <사할린의 석유와 가스 2018>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올해 22번 째로 진행된 이 컨퍼런스에는 6백여 명이 참가했는데 이는 작년대비 10% 더 많은 수다. 이번에는 일본 참가자가 많았고 미국,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회사 등의 대표들이 참가했다.

첫 날 본회의는 사할린주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가 열었다. 그는 석유가스분야는 주 예산 수입의 63%가 된다고 밝혔다. 섬지역에서 러시아의 석유 3.3%, 가스는 4.4%를 채취하고 아시아시장에서의 사할린 천연액화가스 점유율은 이미 9%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2017년에는 사할린에서 석유 1억7천8백만 톤과 가스 3백억m<sup>3</sup>를 채취했다고 전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대통령행정실 에너지분야담당 키릴 물로트초브 부실장, 국가두마 동력위원회 파벨 자왈니, <가스포르> 회사 알렉산드르 메드웨제브 이사회 부회장, <셀> 회사 세데리크 크레메르스, 러시아연방 재무부 일리야 트루닌 차관 등이 발표했다.

대회에서는 극동지역 석유가스개발프로젝트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전략, 세금 전략 등을 심의하고, 사할린과 극동지역의 대규모 사업자들의 개발현황과 계획이 소개되었다.

또한 대회에서 석유가스분야의 혁신(인노베이션), 자연 보호 문제 등을 논의하고, 최초의 컨퍼런스 일환으로 1:1 미팅이 조직되었다.

뒤이어 글로벌 가스시장에 대한 패널, 미래의 사할린프로젝트, 중국과 인도 석유가스 개발 등에 관한 발제가 논의되었다.

(본사기자)

## 단신

### 코제마코 지사 연해주 지사 권한 대행으로 부임

지난 26일(수) 블라지미르 푸틴 대통령은 연해주 안드레이 타라센코 지사 대행의 사임을 승인하고 사할린주지사 올레그 코제마코를 이날 부로 연해주 지사 권한 대행으로 임명했다.

이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코제마코 지사를 만나 코제마코가 연해주 지사대행에 뜻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코제마코는 코라키야주, 아무르주, 사할린주 지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프리모리예(연해주)는 지사로서 4번째 지역이 될 예정이다. 연해주 지사 선거는 두 달 뒤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할린주지사 선거는 내년 봄으로 예정되었으며, 당분간 주지사 권한 대행은 사할린주정부 웨라 셰르비나 수상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 사할린주, 연송어 94톤 획득

9월 21일 현재 사할린주 수산업체들이 9만4천여 톤의 연송어를 획득했는데 이것은 최대 허가량(11만6백톤)의 80%에 해당한다. 획득량의 대다수는 송어(8만 1천 9백 톤), 연어(1만 1천 8백 톤), 키주츠와 네르카(총 1천 톤)다.

가장 많은 송어 3만200톤은 남부쿠릴 지역에서 잡았다고 전해졌다.

사할린 동부 지역(스미르니호 1만 5천 톤, 포로나이스크 1만 3천 톤, 노글리키구역 9천 7백 톤)에서 서부지역(우글레고르스크구역 4백 14톤, 토마리구역 3백 70톤,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구역 1백 50톤)보다 더 많은 양의 송어를 획득했다.

### 사할린주 문화부 장관 사임

사할린주문화부 알렉세이 사마린 장관이 사임을 했다고 전해졌다. 그의 마지막 근무일은 9월 28일이다.

임시 문화부 장관 대행은 손 안나 차관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16년 2월부터 문화부 장관을 지닌 알렉세이 사마린은 그간 전문적으로 볼 때 장관으로 마땅치 못하다는 평판을 받아왔다.

### 올해 <대구의 밤>행사 10월 4일 개최

10월 4일(목) 오후 4시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한인문화센터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대구의 밤>행사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와 민족통일대구청년협의회(회장 하태균)의 공동 주최로 진행된다고 알려졌다. 대구 청년회의 방문단은 약 30명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행사는 보통 1세대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로 진행되어 왔다.

새고려신문

## 2019년 신문주문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상반기 구독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92루블리 84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강제동원 연행 80주년

## 박규영 어르신 자손들의 특별 추석

75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

23일 추석 전날 일요일 저녁에 전화가 걸려왔다. 가끔 여행사 한국어 통역을 하는 이옥분 씨였다.



— 어제 박규영 어르신

한국에서 온 가족분 10명에게 통역인솔을 하고 있는데 내일 일정에 크라스노고르스크 방문이 돼 있더라구요. 가족들에게 물었더니 아버지·할아버님 묘를 찾으러 간답니다. 어르신 성함은 박규영이고 1911년생이랍니다. 사할린에서 재혼하고 자제분들도 있답니다.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출장소 통해서 찾아왔지만 여기 남은 가족에 대해서는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한인회에 연락을 해봤는데 누구도 안 받더라구요. 혹시나 해서 연락을 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필자는 바로 크라스노고르스크한인회 문종기 회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문 회장은 이미 이 사연을 출장소를 통해 알고 있었다. 자신이 1911년생인 박 할아버님, 그의 자제분들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 분인가 100% 확신이 없다는 말이었다. 한국 가족이 바로 내일 크라스노고르스크로 출발한다는 말에 조금 놀라워했고 박규영 할아버님의 막내 아들이 크라스노고르스크에 살고 있

다면서 전화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 안 지나 문 회장은 박규영 할아버님의 막내 아들이 현재 홈스크에서 출장 중이라고 알렸다. 그런데 연락이 잘 안 된단다. 전에 여러번 전화를 해봤는데 휴대폰을 집에 두고 갔었단다.

한국 친척이 필자에게 알린(편지에 적힌) 아버지의 크라스노고르스크 주소를 문화장에게 전했더니 박규영 할아버님이 자신이 생각한 그 분 맞다고 회장이 확신있게 얘기를 했다.

박규영 어르신의 고향은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귀곡리였다. 1943년 강제징용 당한 당시 딸 박병순(1936년생)은 7살, 아들 박진호(1939)는 겨우 4살, 막내 아들 박응호(1943)는 2주일 밖에 되지 않았다. 그랜 가족과 생이별할 것이라고 누가 알았을까.

사할린에 버려진 박규영 어르신이 한 평생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한 만큼 한국에 남겨진 가족도 아버지의 빈 자리를 너무나 잘 느꼈다. 농사와 집안일, 어린아이 보살핌과 시아버지 수발을 오래 동안 들어준 박규영 할아버지의 한국 처도 외로움과 고단함에 시달려야 했다.

이에 대해 이야기한 장남 박진호 할아버님은 눈시울을 보였다.

박규영 할아버지는 1948년 두 아이의 엄마가 된 북한 여자와 결혼했다. 이들 사이에 아들 둘이 태어나는데 현재는 막내 박광호(1958년생)만 살아남았단다.

박규영 씨의 집에도 다른 동포들처럼 귀중한 물품으로 라디

오 기기를 여겼다. 이 라디오 수신기를 통해 고향소식을 엿들어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후반에 막내 아들 응호가 사할린에 가족을 찾는다. 3장의 편지를 KBS 라디오방송에 보냈단다. 이 편지를 낭독하는 것을 사할린에서 아버지가 들었단다.

해방후 처음으로 편지 왕래가 시작되었다. 아버지가 새 가족에 대해 알려주고 한국 가족 사진도 부탁하고 사할린 아이들의 사진도 주고받는다.

잘들 아시다시피 한국은 소련과 외교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편지는 일본(사할린역류귀환한국인회 회장 박노학)을 거쳐 한국으로(또는 한국에서 사할린으로) 전달되었다.

박씨네 가족은 편지 몇 통만 받았단다. 이마저도 1983년에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번 사할린 방문을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1983년에 박규영 할아버지는 큰 병으로 쓰러져 거의 3년 정도 마비가 온 상태였고 1986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아버지에 대한 한이 맺힌 3자매는 아버지의 흔적을 어떻게 찾아야 할 지 고민했지만 올해 박진호 옹의 장남인 박영석 씨(경희대 교수)가 나서서 올 봄부터 철저하게 사할린 방문 기획을 세울 수 있었다.

사할린 한인 묘지 조사 소식을 접하고 한국 행정안전부 사이트에서 묘지조사 데이터를 찾아



사할린을 방문한 박규영 어르신의 가족

친 할아버지의 묘역 위치(GPS)를 알아냈고 방문 준비를 했다. 가족(박병순 할머니와 아들, 박진호 할아버지 내외와 아들 둘과 손녀, 박응호 막내 할아버지 내외와 아들) 총 10명이 이번 추석 연휴에 박규영 어르신 묘를 찾아보기로 했던 것.

일부 비포장 도로, 험한 도로로 이어지는 크라스노고르스크까지는 거의 4 시간가량이 걸렸다. 크라스노고르스크에서는 문종기 한인회장이 이미 이들을 기다렸다. 박광호 씨 딸의 안내 하에 묘에 가서 한국에서 준비한 제사음식을 올려 울음바다 속에서 절을 올렸다.

이산의 아픔은 아물지 않는 상처다.

할아버지의 묘는 별초도 잘 돼 있고 아주 깨끗했다. 잘 보살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를 본 어르신들의 마음이 좀 가벼워졌다.

방문 목적은 100% 성공이었다. 크라스노고르스크에서 돌아

오는 길에 계속 연락이 안 되던 사할린 막내 아들 광호씨와 연락이 돼 가족방문단은 더욱 기쁠 수 있었다. 이들은 당장 홈스크로 들려 막내와 만난다.

광호씨가 형제를 보자마자 금방 형제(이름까지 알고)를 알아보는 게 정말 놀랍다는 소식이다.

알고 보니 그는 한 평생을 무국적자로 지내다 올해 비로소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다고. 그는 이날 돌아가기 전 아버지의 소원도 전했다. 반드시 자기 아버지, 즉 광호씨의 한국 할아버님 묘를 찾아 대신 절을 올려달라는 것이었다... 이 말이 박씨네 전 가족에게 와닿았다. 한국 가족은 벌써부터 새로 생긴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뜻밖의 서로 찾은 형제... 앞으로 서로 못다한 말들이 얼마나 많을까.

70년이 지나 80년이 다 되어가는 사할린한인의 강제동원 아픈 역사...

(배순신 기자)

## 이 모 저 모

### 사할린 주민들 국제 턱걸이의 날에 참가

국제 스트리트 워크아웃 협회가 주최하는 '국제 턱걸이의 날'은 연례적으로 9월 말 즈음 진행된다.

주최 측은 사할린의 유치원 팀들(팀인원수: 어린이 10명), 스포츠 학교 팀들(팀인원수: 10명), 학생 팀들(팀인원수: 학년 대표 1명씩 선정해 11명) 간의 비공식 대회 역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예비 정보에 의하면 9월 21일 학교팀 26개, 스포츠학교 선수단 5개, 유치원팀 5개가 힘을 겨루기 위해 주중양도시 제23호 학교 마당에서 모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49명의 아마추어 참가자 역시 등록한 상태라고 한다. 참가자의 인원은 모두 3백66명에 달했다.

전해진 바에 의하면 개인전에서 사할린 주민 41명이 턱걸이를 20회 이상 했으므로 기록을 갱신한 걸로 보인다. 이중 강 왜체슬라브는 최고 점수차로 우승했다. 55세의 섬 스포츠계 베테랑이자 이 스트리트 워크아웃 선수는 이날 45회의 턱걸이를 통해 관중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대회참가자 전원에게 기념 메달이 수여되었다.

### Сахалинцы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о Всемирном дне подтягиваний

Всемирный день подтягиваний организован Всемирной федерацией воркаута и ежегодно проводится в конце сентября. На Сахалине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едложили неофициальные первенства среди команд детских садов (состав команды – 10 малышей), среди спортшкол (состав команды – 10 человек), среди школьных команд (состав команды – 11 человек, по одному участнику от классного потока).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данным, 21 сентября во дворе школы № 23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попробовать свои си-

лы пришли 26 школьных команд, 5 дружин спортшкол, 5 детских садов. Еще 49 человек заявили как любители. Всего оказалось 366 участников.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в личном первенстве 41 сахалинец превысил порог в 20 подтягиваний. А абсолютным победителем стал Вячеслав Кан. В свои 55 лет ветеран островного спорта и любитель дворовых турников подтянулся, шокировав всех, 45 раз.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соревнований были вручены памятные медали.

### «섬들» 사할린 정기 포럼 참가등록 시작

사할린주에 <#ОстроVa — 2018(섬들-2018)> 지방 청소년 교육 포럼 참가 등록이 시작되었다. 포럼은 베레즈나키촌에 있는 <유빌레이니> 야영에서 10월 8-11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청소년 포럼 행사에서 본 포럼은 5주년을 맞는다.

자원봉사 및 자선사업, 학생·대학생 자치회에 중사하는 사람, 사할린주 각 지방자치회의 청소년 위원회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는 젊은이들 1백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자원봉사, 팀 형성, 설계적·전략적 경영 및 팀관리 분야의 선두자인 코치들이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이 준비되었고, 포럼 참가자들에게는 인기 방송인, 연예인, 국민 영웅들과의 즐거운 만남이 기다린다.

스포츠부 홍보실은 단일 정보 플랫폼을 이용해 10월 5일까지 <러시아 청소년 자동화정보시스템> 참가 여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 Началась регистрация на очередной сахалинский форум "Остров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чалась регистрация на региональный молодёжный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форум "#ОстроVa — 2018". Форум пройдёт с 8 по 11 октября на базе лагеря "Юбилейный" в селе Березняки. В этом году молодёжная форумная кампания отмечает свой первый юбилей: ей исполняется пять лет.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нут более 150 молодых людей, занимающихся актив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волонтерством и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ом, а также школьным

и студенческим самоуправлением, сотрудники комитетов по делам молодёжи с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них подготовлена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куда приглашены ведущие тренеры в сфере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а, командообразования, проектного 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менеджмента и управление командами, а также участников форума ждут интересные встречи с известными телеведущими, творческими исполнителями и Героями России.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участие в форуме можно на единой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платформе "АИС Молодёжь России" до 5 октября,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спорта.

### 페트로파블로브스크-캄차트스키, <극동> 전시회에서 사할린 화가들의 작품 진열

사할린 화가들의 작품들이 페트로파블로브스크-캄차트스키에서 열린 제12회 <극동> 지역 미술 전시회에서 진열되었다. 22명의 화가들—그 중 14명이 러시아 화가협회 회원—이 사할린의 예술을 소개한 전시였다. 전시에는 43개의 사할린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극동> 전시회는 5년에 한 번 열리며 매회 지역의 가장 명성 있는 미술전시 행사. 최근 5년 안에 예술가들이 제작한 그림, 그래픽, 조각, 공예 및 민속 예술의 뛰어난 작품 수천 점이 전시회에서 진열되었다. 러시아 화가협회에 소속된 11개의 극동 지부가 전시회에 참가한다.

내년 모스크바에서 열리게 될 <러시아> 미술 전시회에서 대규모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며 섬에서 선정되어 사할린주를 대표하는 14개의 작품들이 전시회에 참가할 것이다.

<극동> 전시회는 10월 14일까지 캄차트카 향토미술관에서 진행된다. 캄차트카 연수센터 전시관에서 1달 간 그래픽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프로젝트는 문화·문서보관부의 지원으로, '사할린 섬' 체호브 책 문학예술 박물관의 주최로 실행되었다고 <체호브 책> 박물관 홍보실이 전했다. (8면에 계속)

### 세계한인회장대회 10월 3-5일간 서울에서 진행

전 세계 재외동포리더들의 대표적 교류의 장이자 의사결정의 장인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진행된다.

이번 세계한인회장대회를 통해서 한인회간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의 상생발전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정부부처 관계자 및 정당 별 의원들이 참여해 재외동포 정책 설명과 정보 제공, 의견 수렴 등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최근까지 3차례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과 6월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무드가 조성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과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통일전도사’로서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건설적인 자리가 될 것 이라고 재외동포재단 홍보실이 전했다.

사할린을 대표하여 이번 세계한인회장대회에는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회장과 사할린한국한인회 현덕수 회장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 돌린스크, 사할린주한인회 상 미니축구대회 개최

지난 22일 (토) 돌린스크시에서 사할린주한인회상 제 5회 미니 축구 대회가 진행되었다. 올해 대회는 돌린스크시에서 개최되었으며 총 10팀은 돌린스크시 한인회(회장 윤태옥)가 맡았다.

이날 축구 대회 행사에 앞서 돌린스크시 알렉산드르 투가레브 시장, 사할린주한인회를 대표해 박경춘 주인사가족협회 부회장의 환영과 격려가 이어졌다.

총 8개 팀이 출전한 이번 대회는 유즈노사할린스크, 돌린스크, 비코브, 아니와, 코르사코브, 홈스크, 포로나이스크와 네헬스크 등이 각 도시를 대표하는 자리였다.

준결승전에 오른 팀으로는 홈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비코브와 돌린스크 팀이 승부를 겨뤘는데 막상막하의 경기 운영으로 결국 우승 팀은 운명의 승부 차기로 갈라졌다.

1등은 홈스크 시, 2등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3등은 비코브 시의 순서로 영예가 돌아갔다.

조직 운영회 측의 페어 플레이를 강조한 대회였다.

각 시를 응원했던 시민들은 이 날의 행사를 통해 수많은 활력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전언이다.

(본사 기자)  
(사진: 김 가리나)

### 강원도학생, 사할린 방문

지난 25일 강원도 학생 및 인솔단 25명이 4박 5일 일정으로 사할린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사할린주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간 학생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과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실시했다.

학생 1대 1 매칭을 통한 홈스테이를 진행하며 두 그룹(학생 10명씩)으로 나누어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2 김나지아와 동양김나지아를 방문하고 학생들과의 상호교류를 도모했다. 지난 26일 제2 김나지아를 찾은 한국학생들은 이들을 위한 러시아어수업과 한국어수업에 참가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음악수업 중에는 러시아학생들과 함께 <카썬샤> 러시아 노래도 배웠고 문화체험시간에는 러시아 전통 부적인형(천으로)을 만 들었다.

같은 날 주정부에서 강원도 대표단을 사할린주교육부 나탈리아 무라쇼와 장관을 비롯 공식 인사들의 환영이 이어졌다.

사할린에 있는 동안 학생들은 향토박물관, <고르니 위스두호>스키장, <포베다>기념관 등을 탐방하고 청소년회관에서 학생들의 공연과 무술 시범도 즐길 기회가 있었다.

(본사기자)

### 사할린 한인, 그들은 누구인가

최경옥(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전호의 계속)

이와 같이 단순노무행위를 한다는 조건으로 재외동포 비자조차 발급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들이 이들을 재외동포에서 제외시키고 차별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국내 노동 인력 정책만을 고려하는 내국인들의 비인권적 정책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박정해 변호사는 "2008년부터 한국계 중국인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적으로 부여하기 시작해 현재 확대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단순노무 일을 못하도록 하여 상당수 동포들이 '불법취업활동'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법무부가 활동범위에 의하여 재중동포들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해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재중동포들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해주어 자유왕래를 하게 해주고, 필요에 따라 이들의 활동범위를 정해 나가는 것이 옳다. 또한 재외동포 체류자들의 일방적인 단순노무 제한도 위헌이다"라고 주장한다. ("활동범위에 따라 재외동포(F-4) 부여는 모순이다"동포세계, 2013. 8. 4. 이러한 조항에 관하여 박정해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내었으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 2014. 4. 24. 2012헌바412.) 이와 관련 조항은 재외동포법 시행령(제4조 제4항;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및 제23조 제3항)에 따라 중국, CIS 국가 출신 동포에게는 재외동포(F-4)비자발급이 제한되어(이러한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행정법원 2012아2731)을 하였으나 2012. 10. 19.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2.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014. 4. 24. 2012헌바412.),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이 부여되고 있으며 이는 25세 이상인 자에게만 발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사건(2012헌바412)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들(재외동포법 시행령(제4조 제4항)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12조 별표 1중 제28호의 2, 및 제23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라는 결론을 내려, 이 사건 당사자들에게는 체류자격이라는 본질적인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판단을 유보 내지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법률규정과 밀접불가분한 시행령규정까지 심판대상의 확장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재외동포법 헌법불합치 결정 2001. 11. 29. 99헌마494 전원재판부) 즉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3조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양자가 일체를 이루어, 동일한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행령 규정은 모법규정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동 시행령 규정에까지 확장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므로 시행령이라고 하더라도 상위법률과 함께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판결하였어야 할 것이다.

2) 법률유보원칙(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3호; 재외동포 체류자격 취득요건 제한조항)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재외동포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에 관한 이 사건 위임조항은 그 취득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제5조 제4항), 그 위임에 따른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은 그 요건에 관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중 제28호의 2를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11. 4. 5. 법률 제10543호로 개정된 것)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제2항 제3호에서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현재는 동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2017. 10. 31.)). 또한 최신개정으로 병역에 관하여는 38세에서 41세로 상향 조정되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불법체류 동포들은 체류자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외국의 취업과 체류자격) 제3호 별표 1 중 28의2.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할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즉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게된다.

이와 관련된 위헌소원(2012헌바412)(2014. 4. 24. 2012헌바412.) 결정요지 3에서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3호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다만 가변적인 사회,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취득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정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위임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3호, 제10조 5항(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전문개정 2008.3.14.)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제3호의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에 관한 제한 규정이다.

첫째,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로 이로 인하여 재외동포들의 체류자격이 제한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재외동포비자(F-4)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고, 이를 위반하면, 불법체류가 되어, 이는 또다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인정되어 이중의 피해를 보게되는 것이다.

(계속)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В Долинске прошел турнир по мини-футболу на приз РООСК



22 сентября в городе Долинске прошел пятый по счету турнир по мини-футболу среди команд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Этот ежегодный турнир проходит под эгидой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 этот раз ответственным за его проведение стало Долинское отделение во главе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Юн Тэ Ок (Ольга Сергеевна).

Участников турнира приветствовали мэр города Тугарев Александр Валерьевич и зам.председателя Общества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РООСК) Пак Ген Чун (Тамара Юнсуновна).

Турнир собрал 8 команд отделений РООСК -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линска, Быкова, Анивы, Корсакова, Холмска, Поронайска и Невельска.

Состоялись встречи команд в двух подгруппах, в результате которых в полуфинал вышли команды Холмск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Быкова и Долинска. В полуфинале и финале борьба была настолько равной, что победители матча, зачастую, выявлялись только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послематчевых пенальти.

В итоге призы определились в следующем порядке: первое место — Холмск, второе — Южно-Сахалинск, третье — Быков.

Надо отметить четкую, слаженную работу судейской бригады, что позволило провести соревнования на должном уровне.

Участники соревнований отметили отличную подготовку турнира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Успешному проведению турнира способствовала и прекрасная погода. Призеры были награждены кубками, медалями и призами, сообщили в РООСК.

(Наш кор.)

## Школьники из Канвондо посетили Сахалин



25 сентября с 5-ти дневным визитом на Сахалин прибыла группа корей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В феврале этого года юные сахалинцы побывал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по программе, приуроченной к зимним Олимпийским играм в Пхёнчхане. Теперь с ответным визито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иехали корейские школьники, сообщила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Гости посетят гимназ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ворец детского (юноше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спортивные школы, побывают на экскурсиях в современном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Победа", историческом парке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 Меня зовут Вера, — по-русски представилась одна из гостей и продолжил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 Я рада возможности попрактиковаться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местной кухней. Очень хочу попробовать знаменитые блины и шашлык.

Ребята родом из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где развивается преподавани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ак иностранного. Во время своего визита корейские школьники будут жить в семьях сахалинцев.

— Благодаря таким визитам школьники расширяют свои знания о России и мире. Надеемся, что не только наша молодежь подружится друг с другом, но и наши страны станут ближе, и русский язык обретет большую популярность в Корее, — сказала заведующая департаментом образования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Ян Миёк.

В 2016 году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департамент образования Канвондо заключили соглашения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Между восточной гимнази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старшей школой Мукко этой провинции установлены побратимские связи. В 2017 году юные сахалинцы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о Всемирном фестивале образовани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 Спасибо, что нашли время посетить наш остров.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эта поездка запомнится вам и появится желание приехать к нам еще раз. Пользуясь случаем, приглашаю вас на Сахалин в феврал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когда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первые зимни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игры "Дети Азии", — обратилась к гостям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аталья Мурашова.

Несмотря на элементы шоу, нельзя недооценивать ту роль, которую играют межкорейские саммиты в сближ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Обозреватель "РГ"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л свои впечатления от встречи Мун Чжэ Ина и Ким Чен Ына.

## Как лидеры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ближают корейский народ

Большая политика в любой стране не лишена элементов шоу, игры на публику, а уж встречи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вдвойне напоминают спектакль, тем более, что отделы протокола и службы безопасност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расписывают почти каждый шаг и каждую минуту своего "подопечного", а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ях президентам, может и не всегда, но часто, вопросы показывают заранее, чтобы "не было сюрпризов". А потому трудно спорить с теми, кто пренебрежительно фыркает, комментируя недавнюю поездку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Мун Чжэ Ина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говоря: "Да все это шоу!"

Более того, вполне очевидно, что устраивая это шоу дружбы, где главными актерами были Мун Чжэ Ин и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совет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 стороны преследовали свои прагматичные цели. Но при этом стоит признать, что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мотивов Мун и Ким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оказали своему народу народ другой Кореи, заставив южных корейцев подумать о людях из Страны чучхе: "И там люди живут! Не какие-то черти рогатые, думающие только о ядерной бомбе, а люди - со свои-

ми радостями, проблемами и заботами", а северяне, глядя на Мун Чжэ Ина, перед обаянием и подкупающей улыбкой которого трудно устоять, наверняка подумали: "Не, ну какая это бессловесная американская марионетка?! Это нормальный и приятный мужик. Он президент, а ему не зазорно жать руки всем подряд и кланяться нам в пояс. И если южане выбрали такого человека президентом, то сами-то они наверное тоже неплохие люди!"

### Политический дуэт

Глядя на произошедшее в этом году, складывается стойкое впечатление,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разницу в возрасте (Мун старше Кима лет на 30), лидеры Юга и Севера если не стали (пока) закадычными друзьями, то уж точно работают в тандеме, и есть понимание, что надо идти к одной цели. Может быть, в конце концов и возникнут разногласия по поводу того, что лучше - "капитализм с человеческим лицом" или социализм с элементами рынка" - но,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сейчас, Ким и Мун "бьют" в одну точку: они сближают корейцев двух стран, при этом сами показывают пример.

(Продолжение на стр. 5)

## «...И радость, и печаль»

Нынешним летом на территории парка современной скульптуры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близости с восточным факультетом, появился памятник корей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е, поэту и эссеисту Пак Кённи (1926 – 2008). Случай подобного увековечивания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ультуры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в России, наверное, беспрецедентен. Сегодня творчество Пак Кённи (имя которой можно встретить в разных вариантах написания – Пак Кён Ри или Пак Ённи) известно,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тем, кто может свободно читать литературу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ли же тем, кто внимательно следит за переводами книг авторов зарубежной част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первые «русский» голос Пак Кённи обрела сравнительно недавно: в 2011 году был издан роман «Дочери аптекаря Кима» (переводчик – Диана Чанг), а в 2016 году завершен перевод первой части многотомного романа «Земля» (переводчик – Михаил Пак).

Постамент памятника писательнице на Университетской набережной, 11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украшен строчками с риторическим звучанием:

И почему столь яркими для нас  
Становятся и радость, и печаль...

Эти лаконичные стихи могут восприниматься эпиграфом не только к творческому



наследию корей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ы, но и ко всей ее жизни, в которой «печаль» личная и общечеловеческая занимала, несомненно, большее место, чем «радость». Но возможность быть услышанной в России и далеко за пределам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а книги Пак Кённи переведены

на английский, французский, японский и другие языки) может восприниматься почитателями писательницы как «радость», пришедшая на смену противоположному чувству.

При знакомстве с книгами Пак Кённи читатели, возможно, найдут одно из объяснений, почему именно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появился первый памятник писательнице: ведь действие некоторых сюжетных линий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миров писательницы разворачивается в тех местах, где простираются границы России.

Профессор СахГУ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 ОБЪЯВЛЕНИЕ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бъявляет набор детей от 5-ти лет и старше (1 - 3 классы) на курс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творчества.

Занятия по воскресеньям с 12.00 до 13.30.

Преподаватель Пак Галина Михайловна

Тел: 8 900 433 4501.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Мун Чжэ Ин встретился с Трампом



Photo : YONHAP News

С 23 по 27 сентября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находился с визитом в Нью-Йорке, где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73-й сессии Генассамблеи ООН.

В ходе визита он встретился со своим американским коллегой Дональдом Трампом, выступил с речью перед участниками сессии Генассамблеи ООН, а также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ещё в ряде встреч и мероприятий.

На этот раз основное внимание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 Дональдом Трампом было уделено вопросам проведения второго саммита КНДР и США и прогресса в переговорах п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В частности, внимание приковано к так называемому «дополнению» Ким Чен Ына – сообщению, озвученному председателем Госсовета КНДР в ходе прошедшего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Ране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говорил о готовности завершить денуклеаризацию до конца текущего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срока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в январе 2021 года. Озвученное им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послание включает дорожную карту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и требования по ответным мерам со стороны США.

### Встречи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Юга и Севера могут стать регулярными

Как указано в Пхеньянской декларации от 19 сентября, Юг и Север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амерены создать в туристической зоне Кымгансан постоянно действующий центр встреч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Центр встреч был построен ещё в июле 2008 года, однако длительное время не использовался. На его создание было выделено примерно 50 млн долларов. Двенадцатизэтажное здание с одним подземным этажом имеет более 200 комнат, рассчитанных на приём одновременно до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Но пока объект не пригоден для проживания.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здания в нём прошла только одна однодневная встреча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в октябре 2015 года. Для возобновления его работы необходим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Рабочие переговоры п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зоны и открытию центра встреч начнутся уже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праздничных выходных.

### РК на 30-м месте по скорости интернета в рейтинге Worldwide Broadband Speed League

Британский сайт Cable совместно с крупным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м учреждением Google Open Source Research, научным проектом PlanetLab Принсто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 другими подготовил рейтинг скорости интернета за 2018 год - Worldwide Broadband Speed League.

Он был создан на основе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оводившегося в период с июн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 май этого года в 200 странах. РК заняла 30-е место. Это на 14 позиций ниж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указанный период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20,63 мегабита в секунду. Это на 2,27 мегабита мен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Второй год подряд лидером рейтинга оказался Сингапур 60,39 мегабита в секунду.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Швеция — 46 мегабит в секунду. На сайте Cable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небольшая территория Сингапура даёт стране большие преимущества при создани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алее в рейтинге следуют Дания, Норвегия, Румыния и другие. На последнем месте Йемен 0,31 мегабита в секунду.

Между тем, в Национальном агентстве по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сообщается, что в РК скорость интернета 80-90 мегабит в секунду. Но компании, предоставляющие услуги по просмотру фильмов и другие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опции, ограничивают скорость скачивания, исходя из возможностей серверов. А данный рейтинг исследует не просто скорость интернета, а показатели вышеуказанных компаний.

(RKI)

## Как лидеры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ближают корейский народ

(Начало на стр. 4)

Конечно, из-за трех, пусть даже и очень дружеских, межкорейских саммитов нельзя сказать, что "стены непонимания и отчуждения полностью рухнули". Южане, особенно молодежь, просто-напросто не знают, а часто и знать не хотят, как живут "братья по крови" с Севера, хотя Страна чучхе начинается буквально в 40 километрах к северу от Сеула. Подсознательно многие южнокорейцы просто сторонятся, когда слышат рядом стоящих северян - по акценту сразу понятно, из какой Кореи человек. И не стараются вступить в разговор. Разве что посмотрят с опаской, подумав про себя: "Вот вы какие!" И пойдут поскорее дальше. Северяне же просто, скорее всего, реально шарахнутся от заговорившего с ними южанина - не положено общаться с ними.

Одна перебежчица из КНДР, которая по разным причинам в итоге пришла в Южную Корею, сказала о той реакции, которая возникала, когда в вузе однокашники узнавали, что она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а меня смотрели с удивлением, будто бы спрашивали: а где твои рога и хвост как у черта?!" Это дословная цитата. Здесь я привожу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реакцию южан, потому что у них-то все же ограничений поменьше и шансов случайно столкнуться с северокорейцем побольше. Жителям КНДР отнюдь не так просто выехать за границу, а кто едет, те проходя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инструктаж.

Что же увидели южане теперь, когда поездку Мун Чжэ Ина в КНДР регулярно транслировали в прямом эфире все каналы страны: Ким Чен Ын показал себя гостеприимным хозяином, который может признаться южнокорейскому лидеру, что "и хоромы его не такие, в которых Вы бывали в поездках по заграницам", который очень уважительно говорит о президенте Мун Чжэ Ине и не цепляется к тем мелочам, которыми раньше грешили северяне, заставляя заходящие в порты КНДР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уда спускать флаг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готов признать, что может и ошибку сделать и, как оказывается, просил южнокорейцев объяснить, как они руками "сердечко" делают на фото...

Жена у него - не только красавица, умеющая стильно одеваться, но и ведет себя как подобает первой леди, а также помнит, что она гораздо младше, оказывая все почести и знаки уважения своей "коллеге" - первой леди Южной Кореи Ким Чжон Сук. А выстроившиеся по пути следования кортежа северокорейцы, которые, скорее всего в том числе и "по подсказке", устроили бурю ликования Мун Чжэ Ину, и когда он ехал в кортеже с Ким Чен Ыном, и когда говорил перед ними речь...

### Речь, которая вошла в историю

Журналисты сейчас один за другим пытаются выделить самый яркий момент визита Мун Чжэ Ина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трехкратные объятия с Ким Чен Ыном, поднятые вместе руки на вершине священной горы Пэктусан, зарачительно хохочущие Ким и Мун о чем-то, только им известном... Мне же кажется, что самым ярким моментом стало, когда Ким перед собравшимися на стадионе 150 тысячам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сказал: "Я хотел бы горячо поприветствовать и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обратиться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к вам приехавшему к нам в гости глубокоуважаемому президенту Мун Чжэ Ину". После чего Мун сказал: "Мы вместе прожили целых пять тысяч лет, а раздельно живем лишь семьдесят лет, мы - единая нация".

Это был не только первый в истории случай, когда президент Юга обратился лично к народу Севера, но это были еще те слова, которые жители КНДР никогда не забудут, прочувствовав, глядя на Муна, сердцем: "Мы - одна нация". Может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ие машины обеих Корей говорят об этом постоянно, но теперь это президент Юга сказал лично северянам, причем по просьбе лидера КНДР.

### "Дипломатия обаяния" президента Муна

Мун Чжэ Ин вообще уникальный по своей доступности, с точки зре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олитики, президент. На Юге уже привыкли, что он останавливает свой кортеж, чтобы просто поздороваться с прохожими, представляясь: "Здравствуйте, я - Мун Чжэ Ин", что он запретил помощникам наливать ему кофе или подавать пиджак, говоря: "Сам сделаю, не переломлюсь", что он может и вечером "по пивку" пропустить в обычном ресторане, сидя рядом со случайными посетителями, может и "приколоться", незаметно появившись в

кадре из-за плеча обычной женщины, которая стала делать "селфи".

Это было и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непривычно, но Мун как-то уже приучил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к такому стилю, дав повод обвинить его в чрезмерном популизме. А теперь эту доступность увидели и на Севере, когда он жал всем официанткам и сотрудникам отеля руки, когда опять же "пошел в народ" брататься с северокорейцами, да так, что Киму пришлось со смехом его оттащить за локоть, намекая, "пора, господин президент, у нас же офици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Он и его жена кланялись на 90 градусов обычным северокорейцам, что тоже как бы "не царское дело"...

Ну, а про речь на стадионе уже было сказано. Ее прерывали овациями несколько раз, а Ким Чен Ын в итоге снова сказал: "Уважаемы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прошу еще раз горячо поприветствовать нашего дорогого гостя!", спровоцировав новый шквал оваций. Даже если мы делаем скидку на постановочность всех аплодисментов, но его выступление и обращение к северянам, его слова "Я увидел и удивился тому, как развивается Пхеньян" - это в КНДР запомнят.

### "За объединение!"

Речь Мун Чжэ Ина перед северокорейцами транслировали в прямом эфире и в Южной Корее. В этот момент я случайно оказался в одном небольшом селульском ресторанчике, где на стене был телевизор. Сидевшая рядом компания южнокорейцев, увидев Муна, произносящего речь северянам, тут же "нашла повод" для тоста: "За объединение! Теперь уже что-то и вериться начало...", - сказали они, чокнувшись стопками с рисовой водкой соджу... Уверен, что то же самое говорили и километрах в ста к северу, по "ту" сторону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ы,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Как признают большинство экспертов, меж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стал не просто шоу, но и принес реальные результаты. Взять хотя бы записанны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ни при каких условиях не прибегать к мерам, которые могут провоцировать напряженность", а также все конкретные шаги по отводу войск, кораблей, запрету на стрельбы и полеты в районе границы и прочее.

Мун и Ким протянули руку и Трампу, записав в совместной декларации готовность КНДР к ликвидации главного ядерного комплекс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оздав тем самым солидную причину, чтобы уже "встретились и поговорили" Ким и Трамп. Если первый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по сути организовал и в итоге спас, когда он оказался под угрозой срыва, Мун Чжэ Ин, то и теперь он повторил это...

### Обама достоин, а Ким и Мун нет?

Но эффект "мер военного доверия" и обещания по части "шагов,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отказ от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требуют отдельного разговора. Главная заслуга Мун Чжэ Ина и Ким Чен Ына в том, что он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воим примером сближают две части разделенной нации. И делают это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не давая "отойти от эффекта" - за этот год они провели уже три саммита.

Вспомните, какими были меж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год назад, когда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йска вместе с силами США проводили учения, нервировавшие КНДР, на что Пхеньян отвечал "фейерверками" из ракет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и сравните с тем, что происходит сейчас...

Впрочем, лидеры Юга и Севера и сейчас не дают передохнуть народам Юга и Севера от сближения. Ким Чен Ын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ридет в гости в Южную Корею. Даже если это и шоу, то оно и красивое и сближает народы... И это куда лучше, чем война. Так что меж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стоит записать в актив как Мун Чжэ Ину и Ким Чен Ыну, так и всей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И последнее: Обама получил Нобелевскую премию мира в 2009 году, пробыв на посту президента менее года, и, честно признаем, дали ему награду скорее авансом, который он не отработал. Официальное обоснование - "за огромные усилия по укреплению международной дипломатии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народами". Если Обама оказался достоин "Нобелевки" тогда, то что можно сказать о двух корейских "парнях" Мун Чжэ Ине и Ким Чен Ыне? Кто больше на деле укрепил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народами: президент США или Ким с Муном? Хотя да, я же сам в самом начале признал, что политика - это всегда шоу. Мун, да еще в паре с Кимом - нобелевские лауреаты, это же не по сценарию, не так л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 Наследие I зимних Игр «Дети Азии» поможет развитию спорт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ого мнения придерживаются участники втор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аммита молодых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в сфере спорта, который прошел 18-21 сентяб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ибывшие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гости из 19 стран мира дали высокую оценку спортивным объектам, которые в феврал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примут участников первых зимних Игр «Дети Азии». Среди них - дворец спорта «Кристалл», ледовая площадка «Арена»,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Горный воздух», гора Парковая, биатлонный комплекс,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ый центр «Восток».

Основной площадкой проведения состязания станет «Горный воздух», который откроет новый сезон с современной входной группой. Е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уже завершено. Сдача объекта запланирована на октябрь. Входная группа – это двухэтажное здание, которое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пункт проката, магазины, кафе, кассовую зону, мастерскую, санузел, лифт, камеру хранения с индивидуальными ячейками, а также видеозал с детской игровой зоной.

В стади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ходится здание еще одного ледового комплекса «Кристалл-2». Объект разделен на три блока - ледовую арену (одноэтажную с размерами 35,1 на 64,2 метра), технически-бытовой блок со спортзалами (трехэтажный, габаритами 16,35 на 65 метров), и блок помещений и машин для льда (двухэтажный, размером 7,8 на 9 метров). Помимо ледовой арены в комплексе расположатся зал для бокса, тренажерный и универсальные спортивные залы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ых занятий по хоккею и боксу. Кроме того, на первом этаже будут оборудованы медицинский кабинет, помещение для хранения коньков, тренерские, раздевалки и душевые. Сейчас подряд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графиком работ завершает возведение фундамента и несущих стен.

На биатлонном комплексе уже подготовлены трассы, стрельбища, штрафной круг, стадион. В прошлом сезоне здесь состоялись перв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биатлону на призы двукратной Олимпийской чемпионки Анны Богалий. Второй этап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возведение здания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территории.

Проживать участник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гр будут в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ом центре «Восток». Для удобства спортсменов здесь имеются футбольное поле и универсальная спортплощадка. Большой крытый спорткомплекс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зал для игров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ледовую арену, фитнес-зал, зал единоборств и гимнастические залы.

- Я поражен, что такой сравнительно небольшой город, как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меет три ледовых комплекса и здесь вед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четвертого подобного объекта. Сахалин можно приводить в пример, как регион с выраженной спортивн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ью, - отметил один из делегатов саммита,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итета по делам спорта и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Серик Жарасбаев.

На встрече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нтоном Зайцевым он подтвердил участие спортсменов из Казахстана в I зимних Играх «Дети Азии».

- На Сахалине уже сегодня имеется вся необходимая спортив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масштаб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Уверен, спортивные объекты не будут пустовать и по окончании Игр «Дети Азии» - их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для подготовки сборных команд, а также в туристических целях и для развития массового спорта, - отметил Антон Зайцев.

Напомни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мет первые зимни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игры «Дети Азии» в феврал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данным, их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нут 1500 ю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в возрасте до 16 лет из более чем 30 стран мира. Они будут бороться за победу в восьми видах спорта: горных лыжах, сноуборде, биатлоне, лыжных гонках, прыжках с трамплина, фигурном катании, шорт-треке и хоккее.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росла добыча угля и газа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восемь месяцев текущего года.

Объем валов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дукта, по оценке, составил 675,5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или 98,4 процента к аналогичному периоду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бъем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сложился в размере 663,3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или 98,5 процента.

В сравнении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регионе увеличилась добыча газа - на 6,8 процента (21,3 миллиарда кубических метров) и угля – в полтора раза (7,1 миллиона тонн). Нефти, включая газовый конденсат, добыто на 3 процента меньше – 12,4 миллиона тонн.

В целом по области отмечался рост производства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пара и горячей воды, сжиженного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лесоматериалов, пресервов рыбных, молока и молочной продукции, сыров, кисломолочных продуктов, масла сливочного, мяса, мясных субпродуктов и полуфабрикатов, колбасных изделий, хлебобулочных

изделий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в том числе диетических, пива и минеральной воды.

Выпуск продукци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составил 4,9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что в 1,4 раза выше, чем з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период 2017 года. Значительно увеличилось производство мяса (в 1,8 раза) и яиц (в 1,4 раза). Молока получено больше на 7,9 процента. Поголовье свиней выросло в 1,2 раза,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 на 9,2 процента, птицы – на 1,3 процента. Средний надой молока на 1 корову увеличился на 8,6 процента.

За восемь месяцев с начала года в регионе было введено в действие 134,3 тысячи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На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м рынке в отчетном периоде сохранялся рост объемов розничной торговли (на 3,8 процента) и платных услуг жителям (на 1,7 процента).

Уровень регистрируемой безработицы на конец августа 2018 года сложился на уровне 0,5 процента, что ниже аналогичной прошлогодней даты на 0,1 процентных пункта.

## Команда известных российских онкохирургов за два дня провела на Сахалине 13 сложнейших операций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осетила группа из шести россий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профессора Эдуарда Галлямова, заведующего кафедрой общей хирургии Первого москов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ени И.М. Сеченова.

Цель рабочего визита - проведение в областном онкологическом диспансере сложнейших операций. Многие из них стали первыми в практике остров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Ассистировали приезжим врачам сахалинские специалисты. В дальнейшем подобные вмешательства они будут выполнять уж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Это позволит расширить спектр видов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в регионе и в ряде случаев избавит пациентов от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ыезжать в научные центры за пределы области.

- Лапароскопическая резекция желудка, мочевого пузыря – сегодня эти операции выполняются впервые на Сахалине. По своему оснащению островная клиника - одна из лучших в России и уровень специалистов в целом хороший. Но врач постоянно должен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свои навыки,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нашей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сахалинские медики продвигаются дальше, - поделился профессор Эдуард Галлямов.

- Основной вектор, по которому мы движемся, - уйти от открытой хирургии к лапароскопической. Раньше такие операции тоже выполнялись, но не по всем видам заболеваний, сейчас мы расширяем спектр. Для пациента это означает раннюю реабилитацию, отсутствие больших шрамов. Еще год назад мы и мечтать не могли, что пациент на пятые-седьмые сутки будет выписан домой, - рассказывает заведующий урологическим отделением онкологического диспансера Илья Белов. -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олостной хирургией лапараскопия требует иных техник – управления микроинструментом, работы с 3D-увеличением, владения хирургическими энергиями. Профессоры делятся тончайшими нюансами работы в операционном поле - вплоть до постановки рук и положения тела.

Одна из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операций – лапароскопическая резекция мочевого пузыря. Приезжие врачи совместно с сахалинскими выполнили ее за 3 часа. По словам профессора Галлямова, без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опыта она может длиться до 15 часов. Сложность заключается не только в удалении пораженного органа, но и дальнейшей его реконструкции из части кишечника. Не менее сложные вмешательства были проведены и на почке, желудке и других органах.

Одно из направлений, которое планируется к дальнейшему развитию – лапароскопические операции на предстательной железе. Пока их объем недостаточно велик, н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ланируется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ть и этот вид помощи.

## Власт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обеспечат малоимущих граждан аппаратурой для приема телесигнала в цифровом формате

С января 2019 год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смену аналоговому телевидению придет вещание в цифровом формате - с яркой и четкой картинкой, лишенной помех и искажений.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м, как этот процесс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озвучена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лет в нашей стране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й целевой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е телерадиовещан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09-2018 годы» велась подготовка к переходу на цифровой формат вещания. Сеть первого мультиплекса, включающего десять общероссийских обязательных общедоступных телеканалов: «Первый канал», «Россия 1», «Матч ТВ», «НТВ», «Петербург - Пятый канал», «Культура», «Россия 24», «Карусель», «ОТР», «ТВ Центр – Москва», - действует по всей стране. Сейчас обсуждается запуск второго мультиплекса. В него входят каналы: «РЕН ТВ», «Спас», «СТС», «Домашний», «ТВ-3», «Пятница!», «Звезда», «Мир», «ТНТ», «Муз-ТВ».

Когда программа только стартовала, 44 процента жителей России принимали не более четырех телеканалов, а

четверть населения - только один-два канала. Между тем, по информац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циф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связи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лномасштабный запуск цифрового эфирного наземного вещания в январе 2019 года обеспечит для 98,4 процента населения нашей страны бесплатный доступ к 20 обязательным общедоступным телеканалам и трем радиоканалам.

- Разъяснительная работа с жителя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едется уже на протяжении нескольких месяцев, - уточн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Попов. - Для граждан, которые пользуются кабельным или спутниковым ТВ, не изменится ничего. Перемены затронут лишь тех, кто просматривает телепередачи с помощью старых телевизоров, уличных или комнатных антенн. С января будущего года во все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страны аналоговое вещание федеральных телеканалов будет прекращено. Что касается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режнем режиме будет работать региональная телекомпания «ОТВ» и, возможно, «АСТВ».

Жителям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для приема цифрового телесигнала потребуется современный телевизор или специальная приставка для аналогового телевизора. Ее цена – от 600 рублей. За пределами зоны цифрового эфирного наземного вещания не обойтись без специального льготного комплекта оборудования одного из операторов спутникового вещания, например, «НТВ+» или «Триколор ТВ». Фиксированная цена - около 4,5 тысячи рублей –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также пять лет бесплат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 Сейчас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гиона вместе с муниципалитетами выясняет, какое количество граждан на островах нуждается в приобретени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приема цифрового сигнала, - сообщи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руководитель аппарата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тон Волошко. - Задач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 выделить незащищенные категории населения, которым требуется помощь властей.

- По решен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малоимущим семьям и одиноко проживающим гражданам, нуждающимся в поддержке,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ена единовременная денежная выплата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необходим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приема цифрового телевидения, - рассказала глав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оциального ведомства Елена Касьянова. - Она будет производиться по представленным документам, подтверждающим покупку, в размере фактических расходов, но не более 10 тысяч рублей. Для получения выплаты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ся в отделения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или multifunctional центры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к всероссийскому проекту «Добро в село»

Добровольцы помогают оказывать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в сельских медучреждениях, пропагандируют здоровый образ жизни. Главные участники акции -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вижения «Волонтеры-медики», на Сахалине его поддержала группа студентов медиц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Первую остановку будущие фельдшеры и медсестры сделали в селе Высокое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им выделили отдельный кабинет в новом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ом пункте.

В других помещениях и на улице работ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ескольких медицинских служб, они решили внести свою лепту в акцию. Приехал передвижной рентген-кабинет для обследований по флюорографии и маммографии. «Центр СПИД» направил сюда мобильную лабораторию. В самом ФАПе посетителям предлагали сдать анализы на уровень сахара и холестерина в крови.

- Мы отвечаем за проведение антропометрии, измерение роста и веса, артериального давления. Информировем наших пациентов о факторах риска, способствующих развитию различ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напоминаем о профилактике, - рассказала региональный координатор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Волонтеры-медики» Ксения Величковская.

- Сегодня в области выстроена работа по регулярному посещению уз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небольши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Проект «Добро в село» - это хорошая возможность дополнить это направление деятельности. Мы смотрим, какие виды обследований востребованы. Если возникне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то в дальнейшем будем корректировать состав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едучреждений, - сообщила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Лариса Згурьева.

Группа добровольцев в сахалинском медицинском колледже была сформирована недавно, в нее входят студенты разных курсов. В проекте они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без отрыва от учёбы, выезды для них организуются в послеобеденное время.

Акция продлится до 1 ноября, в населённые пункты студенты со старшими коллегами будут выезжать каждый четверг. В следующий раз большой медицинский десант отправится в село Чапаево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추석특집]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더 외롭고 쓸쓸한 추석

"가족과 생이별...명절이 더 외롭다"  
일제 강제징용서 시작된 고통의 역사  
규정상 해방일 이전 출생자만 귀국  
전국 3천명 등지... 충북 219명 거주  
대부분 자녀·손자들은 지원 못받아  
관련법 시급... 일에 배상도 요구해야  
올해 적십자사 항공료 혜택 '희소식'

편집자주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는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장애인 자녀 등이다. 이번 추석에도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들은 자녀와 떨어져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다. 이제 정부는 한국 국적회복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 사할린 동포들을 만나 그들의 애환을 들어봤다.

#장종일(79)씨는 지난 2008년 러시아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한 동포다. 현재 자녀와 손자들은 하바롭스크에 살고 있다. 러시아 있을 때는 가족이 다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냈는데 이번 추석에는 혼자 쓸쓸히 보낸다. 사할린동포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배우자와 장애인자녀 1명만 동반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와 손자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어떠한 공적서비스도 받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다.

#유무문(77)·박점이(67)씨 부부는 지난 1985년 사할린을 떠나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자녀와 손자들을 데리고 거주지를 옮겼다. 영주 귀국할 줄 알았으면 사할린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자녀들과 손자들이 알마티에 거주하면서 비싼 항공료로 인해 3년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렵다.

대한적십자사가 자녀들을 초청해 이번 추석에는 가족이 모일 예정이다.

사할린 영주귀국동포들의 소원은 여생을 사할린에 있는 가족과 자주 만나는 것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규정상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태어난 사할린 거주 주민만 영주귀국 할 수 있다.

영주 귀국대상은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장애인 자녀 등이다. 영주귀국 동포들의 자녀는 대부분 한국인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이들이 사할린에 자주 가보기도 쉽지 않고, 자녀들이 방문도 쉽지 않다.

올해부터 대한적십자사가 영주귀국 동포 자녀들의 한국 방문 시 항공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생겨 자녀들을 초청해 7일간 지낼 수 있게 됐다.

장종일씨는 "자녀들과 손자들이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살고 있어 보고 싶을 때는 강릉에서 배를 타고 1년에 한 번은 고향을 방문한다"면서 "자주 고향을 가지는 못하지만은 아버지 기일에는 한 번 씩 간다"고 말했다.

유무문·박점이 부부는 "자녀들과 손자들이 카자흐스탄 알마에 살고 있어 비싼 항공료로 인해 지난 3년간 자녀들과 손자들을 직접 볼 수는 없었다"면서 "그래도 인터넷 화상통화를 통해 자주 연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취업비자를 내주며 정작 동포의 자녀들에게는 나라가 너무 홀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그들은 "나라에서 하루 빨리 법을 제정해 자녀들과 손자들이 영주 귀국해 한국인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사할린 동포의 역사는 1938년 4월 일본정부에 의한 '국가총동원령'과 함께 시작됐다.

일본은 패망을 약 1년 앞둔 1944년 9월 '국민징용령'을 통해 정전까지 불과 1년 사이 86만여 명의 우리 국민을 강제 연행했다.

이들 강제연행 노력자 중 15만여 명이 사할린으로 끌려갔다. 일본 본토로 징용됐다가 사할린으로 이중징용된 것이다.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는 일제시대 때 일본인에 의해 사할린으로 강제로 징용돼 꺾박과 억압을 당하며 모진 세월을 살아왔다.

패망한 일본정부는 자국민민은 귀국시키면서 강제 징용한 우리 동포들을 사할린 땅에 남겨두고 철수했다. 이후 사할린에 버려진 동포들은 소련정부의 강제역류정책에 의해 감시와 꺾박 속에서 지낸 세월을 견뎌야 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 정부의 귀환 불허 및 일방적 국적 박탈 조치(1952년)로 사할린에 잔류하고 있다.

종전 당시 4만3천여 명의 한인이 잔류, 지난



장종일씨(위쪽 오른쪽 첫 번째) 할머니 회갑연이 지난 1957년에 집에서 열리고 있다.

2014년 12월 말 기준 2만7천여 명의 한국계 동포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1세는 700여 명이다.

지난 1988년 서울 올림픽 및 한·소(蘇)관계 개선 이후 한·일 적십자사를 통해 사할린 동포의 모국 방문과 영주귀국을 활성화해 민간시설 등으로의 개별 영주귀국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989년 사할린동포 모국방문 시작으로 1994년 3·7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사할린한인에 대한 지원논의 결과 사할린한인 1세 대상의 영주귀국시범 사업으로 500가구 사할린한인 전용 아파트 및 100명 수용 요양원 건립 추진을 합의하고 건립부지는 한국이, 건설경비는 일본이 대기로 결정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광복 이후 모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할린 잔류 한인들의 영주귀국을 1997년부터 추진했다. 1997년 12월부터 1998년 9월까지 조기귀국사업으로 82가구가 영주귀국 했다.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는 구(舊) 소련의 수교 이후 1997년부터 영주귀국이 시작돼 2017년 12월 말 현재까지 총 4천396명으로 사망 및 역귀국자 제외 시 전국 29개 지역에 3천여 명이 등지를 틀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영주귀국 동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를 받고 있으나, 영주귀국을 함께 하지 못한 자녀들과 손자들과 생이별로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다.

영주귀국 동포 정부 지원금은 1인 가구 50만1천632원, 2인 가구 85만4천129원, 3인 가구 110만4천945원, 4인 가구 135만5천761원 등이며 영주귀국 동포가 사망할 경우에는 장제비로 1명당 75만원이 지급된다.

올해로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은 11년째를 맞이하지만 '사할린에서 온 이방인'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2017년 12월 말 현재 충북에는 청주시 오송에 65명, 음성군 음성읍에 54명, 제천시 영천동에 100명 등 총 219명이 거주하고 있다.

음성군은 지난 2009년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사업 추진해 2009년 11월에 러시아 하바롭스크 20명, 사할린 16명, 모스크바 6명, 알마야타 4명, 사할린 20명, 블라디보스토크 4명 등 35가구 70명이 정착했다.

음성군 사할린 영주귀국동포는 그동안 8명의 귀국동포가 사망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떠나면서 2018년 9월 현재 46명만이 거주하고 있다. 이중 70대 이상의 고령자만 31명이어서 앞으로 사망자는 늘 수밖에 없다.

음성군에서 전국 사할린동포 한마음대회가 음성 품바축제 기간 중 올해로 9회 째로 매년 전국 사할린 동포들을 초청해 위문공연과 한마음대회가 열린다.

장씨는 "올해 내 나이 80인데 앞으로 살면 몇 년인데 자식들과 손주들이 영주 귀국해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이라면서 "정부가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 가족들이 다함께 모여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968년에 아버지와 함께 조선학교에 근무하면서 학예회에서 심청전 연극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난다"면서 "추석 명절만 되면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더욱 더 생각난다"고 덧붙였다.

유·박씨 부부는 "주공아파트 임대와 1명당 50만원 정도 생활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가 스스로 소임을 다했다는 태도라면 곤란하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일본정부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일보=음성/ 김윤수 기자)

[우리말로 깨닫다]

## 추석을 말하다

부모님과 조상을 만나는 추석은 한민족 최대의 명절, Korean Thanksgiving Day

추석은 우리민족의 가장 큰 축제입니다. 설날도 중요한 날이지만 추석이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설날은 양력과 음력 1월 1일로 지내는 사람이 나뉘고 있는 형편이기도 합니다. 설날은 중국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날입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중국 학생들도 대부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인지 설날을 'Chinese New Year'라고도 하죠.

그런데 중국인에게 추석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추석이 제일 중요한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그야말로 한민족 최대의 명절이죠. 저는 추석을 풍성하게 더 잘 지내서 세계인들이 'Korean Thanksgiving Day'로 부르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추석이 있는 주는 쉬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교통체증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추석에 여행도 다니고, 부모님과 친지들도 만나는 겁니다. 중국의 춘절이 세계적인 축제의 날이 되는 것도 긴 휴일에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석 절기에 지방마다 축제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에 홍보도 더 해야겠죠.

추석은 고마움을 표하는 날입니다. 추수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거죠. 조상에게 감사를 표하는 날이고, 달리 말하면 효도의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추석(秋夕)이라는 말을 보면 저녁이라는 의미의 '석(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추석이 '저녁'과 관계있음을 보여줍니다. '달'과 관계가 있는 날이겠죠. 설날이 해의 날이라면, 추석은 달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을 저녁에 고마움을 표하고 소원을 비는 거죠.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것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달님은 기원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둠을 비추어주는 귀한 존재이지요. 마음의 어둠도 환하게 비출 겁니다.

차례나 제사를 너무 엄숙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관혼상제(冠婚喪祭) 중에서 상(喪)만 슬픈 것이고 나머지는 좋은 겁니다. 제사도 좋은 거죠. 제사는 길례에 속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을 기억하는 날인데 슬플 이유가 없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방식은 다양하고 다르겠지만, 즐겁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조부모나 부모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아는 시간도 될 겁니다. 옛 사진도 보고, 비디오도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추억하지 않으면 조상은 더 이상 조상이 아니게 됩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조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명절이 무섭고 귀찮다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이유 중에는 말의 문제도 있습니다. 말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어떤 말이 좋은 말일까요? 듣는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 해야 할 말이고, 듣는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칭찬은 해도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칭찬도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칭찬하면 안 됩니다. 칭찬의 기본은 관심입니다. 어디가 바뀌었는지도 보고, 어떤 칭찬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칭찬도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보통 말이라고 하지 않고 소리라고 합니다. 우리말에서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 같은 소리를 해라라는 표현이 나왔죠. 잔소리는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너 잘 되라고 한 말이라고 하는데 듣는 사람에게는 말이 아니라 소리일 뿐입니다. 큰소리가 나서도 안 되겠죠. 꼭 명절 때 싸우는 집안이 있습니다. 서로가 기분 나쁠 만한 말을 하고, 서로를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케케묵은 서운한 이야기를 꼭 명절 때 합니다. 명절 때는 좋은 이야기만 하세요. 물론 헛소리도 하면 안 되겠죠. 술도 지나치게 마시면 헛소리가 나옵니다.

추석에 조상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이 깊어지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이 넘쳐나기 바랍니다. 추석이 더 기다려지는 날이 되기 기원해 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조현웅(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